

11 월의 사양관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최순호, 조용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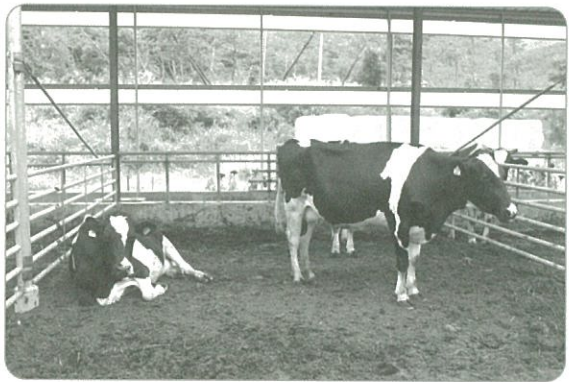


사양관리

가온급수기, 전기를 넣을 경우 반드시 누전여부 확인해야

밤낮의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야간에 갑작스런 기온저하에 대비하여 보온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환절기 송아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축사내외의 동파를 방지하고 겨울나기를 위한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급수기의 물이 얼게 되므로 전기를 넣어 물이 얼지 않도록 물의 온도를 높여준다. 주의할 것은 여름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온급수기에 전기를 넣을 경우 반드시 누전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소는 전기에 매우 약하므로 약간의 누전에도 쇼크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소들은 급수기에 접근을 꺼려 음수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산유량 저하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일리지 제조부터 가축에게 급여할 때까지 일어나는 총 에너지 손실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40% 정도인데, 주요 손실 원인은 사일리지 제조 후 2차 발효 및 급여과정에서 총에너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사일리지 제조 후 저장에서 급여까지 사일리지 품질을 유지·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사일리지 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개봉 후 2차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크나 삽으로 파낼 경우, 그 면적을 가능하면 적게 한다. 또한 매번 파낸 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덮어 주어야 한다.



자우 및 육성우는 환경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로 호흡기질환 발생 가능 미리 관찰하고 조기에 치료해야

젖소에게는 여름철의 고온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차가운 날씨 또한 추위스트레스로 작용한다. 특히 큰 일교차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발생률을 높이므로 축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환절기의 큰 일교차는 추위, 더위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하므로 우사 내 환경은 항상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우 및 육성우는 환경온도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로 호흡기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환축을 미리 관찰하고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겨울철은 바이러스의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바이러스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즉, 호흡기 혼합백신, 로타, 코로나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분만송아지의 경우 추운 날씨에는 쉽게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온장치를 점검한다.

또한, 발굽질환은 연중 젖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을 통하여 관리를 해야한다. 특히, 발굽세족은 발굽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굽의 피부염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건강한 발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세족시설의 위치는 착유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일차적으로 물로 분변과 이물질을 씻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세족기로 들어가는 것이 세족액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 좋다. 세족은 일주일에 3회 정도 실시해주는 것이 좋다.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굽삭제를 해서 발굽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한다. ㉞

방역 및 위생관리

